

2023. 9. 12.(화) 조간용

이 보도 자료는 2023년 9월 11일 오후 17:3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 자료

담당 부서: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: 3쪽

도시계획과장		정성국	2133-8305
종합계획팀장		좌승호	2133-8317
국가 건축정책 위원회	건축혁신 기획팀장	권유정	397-5505
	사무관	강맹화	397-5518
국토 교통부	건축정책과장	이진철	044-201-3755
	사무관	조관우	044-201-3758

### 역사성·상징성 깃든 국가상징공간, 서울 전역에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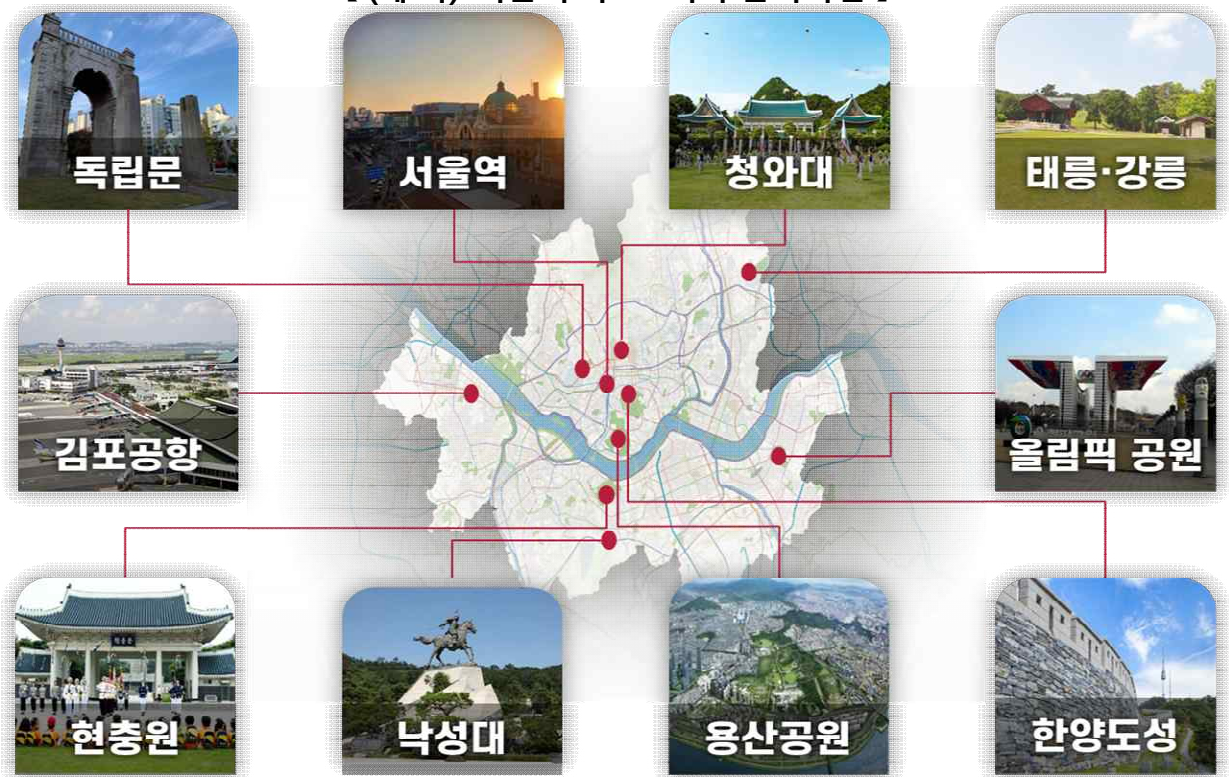
- 서울시·국가건축정책위원회·국토부 업무협약 ... 국격 고양·국민적 자부심 고취 -

- 서울시는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(이하 '국건위'), 국토교통부와 국가상징공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, 9월 11일 오후 16시 30분 국건위 회의실에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한다.
- 국가상징공간은 도시의 주요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하여 국가적 정체성을 표출하고, 미래도시비전을 선도적으로 구현하는 대표적인 역사·문화·시민 소통 공간을 의미한다.
-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3개 기관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국가상징공간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고, 앞으로 공동 계획수립, 선도사업 추진, 공동홍보 및 비전발표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또한,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요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문체부, 보훈부 등 주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.

□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의 대표적 역사·문화자원을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, 국가적 정체성과 국민적 자긍심을 고양하고 서울시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.

【 (예 시) 서울의 주요 역사·문화자산 】



※ 위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선도사업 선정과는 관련 없음

□ 서울시는 서울 곳곳의 주요 공간들을 역사·문화적 가치를 보여주는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협의체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, 도시 및 건축적인 관점과 역사·문화적 가치를 접목한 통합적인 공간구상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.

- 권영걸 위원장은 협약을 통해 “국가상징공간을 국가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국민적 자부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협업과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”하다고 언급하며, “국건위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  
- 원희룡 국토부장관 또한 “국격을 높이는 국가상징공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”며, “국가 SOC인프라의 주무 부처로서 국가상징공간의 방향과 연계한 국토도시의 미래비전을 함께 고민할 것”이라고 전했다.
  
- 오세훈 서울시장은 “서울시민들과 국내·외 관광객들이 서울과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,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국가상징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